

TV 31일

★이 프로그램은 방송사 사정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

Table with 5 columns: 채널A, KBS1, KBS2, MBC, KBC/SBS. Rows show program schedules for various channels.

이준기 “배우로서 계속 도전할거예요”

최근 막 내린 MBC ‘아랑사또전’ ... 차기작 준비 중

MBC ‘아랑사또전’으로 2년 만의 복귀작을 마친 배우 이준기(30)는 최근 드라마가 끝난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도, 부지런히 차기작을 알아보는 중이다. “현장을 떠나면 내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다. 이런 걸 다 떨쳐내려면 현장에서 살아숨쉬는 느낌을 받아야 한다”며 벌써 촬영장을 그리워하고 있을 정도다. 그의 씬에는 일 욕심에는 지난 2월까지 군 생활을 하며 느낀 ‘절실함’도 한몫했다. 이준기는 “군에 가기 전 1년에 한 작품씩 하면서 나를 부지런한 배우가 아니냐고 혼자서 만족했던 것 같다”며 “군에서 풀이켜 보니 그런 시간이 아까웠다. 배우로서 계속 도전하고, 깨지더라도 부딪혀 보면서 기회를 소중하게 활용해야 했다”는 생각을 많이 했다”고 털어놓았다. 그가 아침 차게 택한 복귀작은 MBC 판타지 사극 ‘아랑사또전’이었다. 그러나 드라마는 초반 기대에 못 미치는 성적으로 막을 내렸다. 평균 시청률은 12%로 나쁘지 않았지만 이야기의 완성도 면에서 아쉬움을 남겼다. “만감이 교차해요. 대중이 이준기란 배우를 얼마나 신뢰해 줄 수 있을지 걱정도 많았는데 잘 끝내서 만족스러워요. 다만 작품이 대중의 기대에 못 미친 것 같아 아쉬워요. 더 재미있게 뽐낼 수 있지 않았을까 싶어요. 알곡달콤한 로맨스에 대한 기대감이 있었는

데 사건 중심으로 보여지다 보니까 그러지 못한 것 같아 아쉬워요.” 작품은 기대에 미치지 못했지만 그에게 ‘아랑사또전’은 “현장에 존재하는 이유와 행복감을 느끼게 해 준 작품”이었다. 그는 “절실함을 느낀 채 만난 난해한 도전 과제였고, 아슬아슬한 줄타기 같은 작품이었다”며 “그렇지만 현장에서 즐겼던 만족감이 커서 다음 작품 활동에 더욱 박차를 가하는 원동력이 될 것 같다”고 밝혔다. 군 재대와 함께 이준기는 30대 배우 대열에 들어섰다. 이준기의 20대는 화려했다. 그는 20대를 인생의 가치관을 알게 해 준 시간이었다고 돌아봤다. 화려했기 때문이 아니라 외로움 끝에 자신을 돌아보게 해준 시간이었기 때문이다. 이준기는 “실수도 해보고 외면도 당해야 이런 것들을 느낄 수 있다. 그런 게 오래 남아서 나 자신을 재검열하는 기억으로 남는다”며 “그런 시간을 잘 보내서 지금도 대중이 외면하지 않고 봐주시는 것 같다”고 돌아봤다. 스타의 모습과 별개로 배우 이준기는 20대 내내 대중의 편견을 깨오는 작업을 해왔다. ‘왕의 남자’ 후 이준기는 중성적인 이미지 탓에 연기에 한계가 있을 것이라는 예상을 깨고 드라마 ‘개와 늑대의 시간’과 ‘일지매’



〈이준기〉

를 통해 남성적인 매력을 선보였다. “계속 도전하다 보면 기대보다 안 좋은 캐릭터를 만들 수도 있지만 대중이 새로운 평가를 할 여지도 생긴다”는 게 그의 생각이다. 그는 앞으로도 머뭇거리지 않으려 한다. “더 박차를 가해서 최대한 부딪혀 보려고 합니다. 차기작은 드라마, 영화 안 가리고 살펴보고 있는데 좀 더 많은 분께 연기하는 모습을 보여 드리려면 드라마가 좀 더 낫지 않을까 생각해요.” /연합뉴스

知天命이 모든 오늘의 운세

10월 31일(음 9월 17일 乙丑)

Table with 2 columns: Animal sign (子, 丑, 寅, 卯, 辰, 巳) and corresponding horoscope text.

EBS 플러스1 and EBS 플러스2 program schedules.

It's up to you. 당신이 정하세요. A: Will you have lunch with me? B: Yes, I'd like that very much. A: Shall we have steak or Chinese food? B: It's up to you.

한자이야기. 不惑(불혹). 아닐 불, 미혹할 혹. 불혹(不惑)이란 '마음이 흐려서 무엇이 옳지 않다'는 뜻으로, 나이 마흔 살을 일컫는 말이다.

니하오 쑹구위. 塞翁之馬 Sāi wēng zhī mǎ. 새옹 아들 군면제 특혜 받다. '淮南子'에 보이는 변방 노인네(塞翁)의 말(馬)이야기. 요행으로 얻은 말 위에서 아들이 놀다 떨어져 다리를 다치게 되지요. 그래서 군대를 면제받았습니다.

오하오우 니혼고. また小學生になりたくなるわ. 다시 초등학교생이 되고 싶은걸. A: 由香さん、あのランドセルかわいくない? B: そうね。かわいいね。色も昔とはずいぶん変わったよな。